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재택 근무)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대기

지도수녀: 김도경 헬레스틴(투스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40,1-5.9-11

[화답송] 시편 85(84),9ㄱ-ㄴ과 10.11-12.13-14(◎ 8 참조)



(후렴)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12월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기도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는 인격적 관계가 하느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더 굳건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2독서] 2베드 3,8-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음] 마르 1,1-8

[성가안내]

- 입당성가 [481] 요르단강에서
- 봉헌성가 [94] 하늘은 이슬비처럼
- 파견성가 [91] 구세주 빨리 오사

미사 봉헌	
● 연기사	봉헌
김화자 소화테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숙 카타리나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김준일 베드로	김애희 테클라
김영복 아네스	김애희, 이경자
● 생기사	
하비에르 윤, 로마노 윤	윤 루시아
이미진 조앤그레이스	이지훈 아네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홍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성가대)	
12월 6일	백이백 아오스딩	이경자 울리안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이경자 울리안나	이지훈 아네스	독서자는 미사 전, 제의방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제와 함께 행렬합니다.
12월 13일	이은경 헬렌	박기웅 사도요한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혜윤 크리스티나	양미숙 마리아	

“원숭이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죽으로 자루를 만들되 입을 좁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가고 나올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그 자루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실을 넣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습니다.

원숭이가 나타납니다.
너석은 자루 속을 들여다보곤 '웬 떡이냐'며 희희낙락합니다.
그러고는 '얼씨구냐'하고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어 과실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숭이의 손은 자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과실을 쥐고 있으니깐요.

나뭇가지에 매여 있는 가죽 자루, 그 가죽 자루 속에 붙들려 있는 원숭이의 손.
가장 간단한 이치를 가련한 원숭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손안에 쥔 먹이를 놓아 버리면 될 것을.
그러면 저 자유의 숲을 다시 누빌 수 있으련만.

원숭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원숭이의 욕심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손에 쥐고서 놓지를 못합니까?
그 욕심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끝장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본당 게시판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5)

-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 전마사자(카타리나) 김동희(헬레나)
- 이중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 홍봉운(바오로)

주님!
이 계절에
모두가
외롭지 않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서 없이 함께 사랑되게 하소서

잔잔한 눈길로 마주보며
마음과 마음으로
화통한 평화의 웃음 웃게 하소서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15 am(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미사(영어) :

월-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9:15 Korean Mass"

[지켜야 할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 봉헌 :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체 :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 한 줄로 서서 6피트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님 신부님 미사 일정

새 신부님은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오시는 동안 손님 신부님께서 주일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12.6 | 13 : 김학범 알폰소신부(메리놀회)

12.20 | 27 : 조홍래 베드로신부(뉴웍대교구)

대림 판공 성사 안내

- 일시 : 대림시기 매주일 08:35시 부터
- 장소 : 클레어 룸(기존에 주일학교가 사용했던 장소) 안쪽의 1층 컨퍼런스 룸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12.2 비비안나 12.3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12.6 니콜라오, 아셀라 12.7 암브로시오
- 12.8 성모마리아 축일
- 12.9 요한디다코(후안 디에고)
- 12.11 다마스 12.13 루치아, 오틀리아
- 12.14 십자가의 요한 12.25 아나스타시아
- 12.26 스테파노 12.27 사도요한
- 12.29 다윗, 토마스베케트
- 12.31 실베스테르



◦ 마니또 발표 및 선물 전달 : 12.25 미사 후, 성당 입구에서 개별적인 만남

★마니또 미션을 수행하세요!!

1. **기도선물** : 미사 봉헌, 미사영성체, 묵주기도, 화살기도, 주모경 등을 한다.
2. **성탄카드** : 성탄 인사와 함께 위 1항의 <기도 선물> 숫자를 적는다.
3. **선물준비** : 15~30불의 마니또가 원하는 선물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했을 때 검색순위가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르기 위하여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위 한글 이름으로 검색하여 다른 곳이 아닌 하단의 방문기록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2021 달력배부 안내

12월 초중순에 달력배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달력배부는 직접 수령이 원칙이었으나 초유의 사태인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1. 전달할 수 있는 분에게 의뢰.
2. 원거리 거주 신자분을 대상으로 발송. 직접 전달할 수 있거나 발송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1 주보 광고(신청비 : \$200)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뒷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탄 대축일 꽃 봉헌

꽃 봉헌을 받습니다. 봉헌금은 미국 본당에서 준비하는 성탄전례 꽃꽂이에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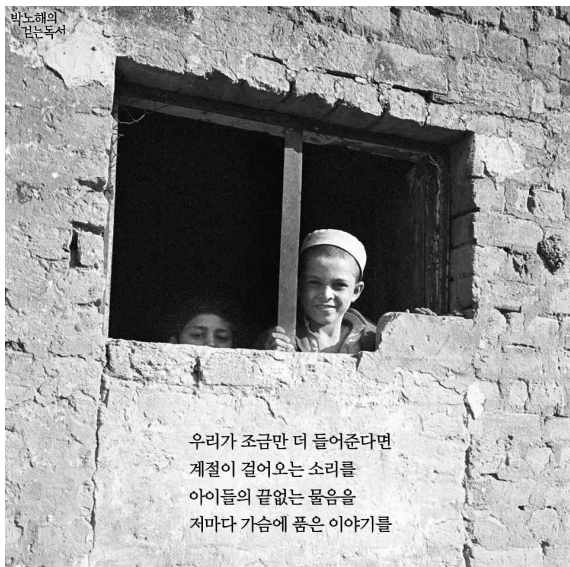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35 → 클레어 룸(기존에 주일학교가 사용했던 장소) 안쪽의 1층 컨퍼런스 룸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12:00pm, 클레어 룸

[복음 묵상] "낮선 소리에 익숙해지기"

우리는 일상 안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된다. 크고 작은 소리, 사납고 부드러운 소리, 유익한 소리와 무익한 소리 등, 내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관심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진다. 관심이 없는 소리는 가까이서 들려와도 들리지 않고 관심이 있는 소리는 멀리서도 잘 들리는 법이다. 요즘은 어떤 소리가 가장 흥미롭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가? 문제는 우리가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 것에 있는 것 같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을 일컬어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라 칭한다. 그 소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굽은 길을 바르게 하라는 소리' 곧 회개의 소리다. 해마다 들려오는 이 회개의 소리, 과연 올해는 얼마나 우리들 귀에 들려오는가? 낮선 소리들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흑 회개의 시작이 아닐까? 사랑하라는 소리, 이웃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 정의를 외치는 이들의 소리, 봉사에 초대하는 소리가 은은하게 내 귓가에 들려오는 시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거짓소리에는 초연해지고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며 그 소리를 쫓는 사람들이다.

인권주일이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한 주간을 보내보자.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준다면
계절이 걸어오는 소리를
아이들의 끝없는 물음을
저마다 가슴에 품은 이야기를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CLEAR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212.971.0212/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단체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사목회	4th 주일 11:00am	Conf. Rm(2F)
Choir 1 (하늘처럼)	매월 4번째를 제외한 모든 미사 담당 08:30 am & 11:00am	Choir Room